

'붉은 노을 빛 역사거리를 걷다'

'무주 문화제야행' 23일~24일 8개 밤(夜) 테마 공연·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

2023 무주 문화제야행이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오후 6시~10시)에 걸쳐 한풍투와 최북미술관, 사랑의 다리, 남대천, 향교, 군청(&후정), 전간도로 등 무주읍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붉은 노을 빛 역사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무주 한풍투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2021. 6. 24.)일을 기념해 주변 문화시설과 유·무형·향토·민속 문화재를 연계·활용해 개최하는 것으로, '야경(夜景)', '야사(野史)', '야로(夜路)',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숙(野宿)', '야식(夜食)', '야시(夜市)' 등 8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밤에 비취보는 문화제'를 주제로 한 '야경(夜景)'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문화제 이야기를 비롯해 한풍투·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보안행렬 입체모형 야간개방, 그리고 다도(茶道)·안성낙화놀이·소원 등 달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밤에 듣는 이야기 야사(野史)'에서는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문화제 이야기와 '화가 투, 저포놀이, 용호쌍옥' 등 전통놀이 체험, 이야기꾼 공연과 함께 무주지역의 민속놀이 및 무형문화재를 알아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역사의 마중길 야로(夜路)'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비롯해 남대천에 '등' 띄우기 무주 포토 존(photo zone) 한풍투, 오산리 구상화강 편마암, 최북미술관, 지전마을 옛 담장, 무주향교대성전, 안국사 영산회괘불탱도장 체험, 한복패션쇼 관람을 할 수 있으며 무주의 역사와 조선왕조실록을 이해할 수 있는 옛 책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2023 무주 문화제야행이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한풍투와 최북미술관, 사랑의 다리, 남대천, 향교, 군청(&후정), 전간도로 등 무주읍 일원에서 개최된다.

'별빛에 비추는 무주畵 야화(夜畵)'에서는 무주출신 비평문화가 김환태와 조선후기 화가 최북에 대해 알아보고 표현을 해보는 아크릴 '등'과 나만의 책 만들기, 무주문화재 채색과 안국사영산회괘불탱 컬러링북(색칠이 가능한 그림책) 체험이 가능하다.

'무주 락(樂)풍류 야설(夜說)'은 공연이 함께 하는 무대로 한풍투 무주아리랑 공연(국악+오케스트라)과 야설 이야기꾼 공연, 북청사자놀음, 삼베짜기 재연과 체험, 솟대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된다.

'양사재에서 허룻밤(宿) 야숙(野宿)'은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등을 연계한 숙박, '맛(味)따라 흥(興)따라 야식(夜食)'에서는 문화제 쿠키와 음료, 수제 디저트, 떡볶이, 부추 전, 메밀전병, 머루꿀떡, 탕후루, 닭 꼬치, 미숫가루, 커피, 식혜 등 다양한 음식

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무주도깨비정터 야시(夜市)'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과 지역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도깨비시장, 무주지역 청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부스, 무주자원봉사한마당, 그리고 야경과 연계한 무주지질공원 팝업 북(pop-up book) 책을 펼쳤을 때 그림 등이 튀어나오도록 만든 책) 만들기 체험이 기다린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박순옥 과장은 "무주 문화제야행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이자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무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무형·향토·민속 문화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창업교육 수료생 작품전시회 개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여성 위한 스마트 토탈 공예지도사 교육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스마트 토탈 공예지도사(창업)교육 수료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이뤄졌다.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120시간) 진행된 스마트 토탈 공예지도사 교육은 △기업가 정신교육 △12가지 토탈공예 이론 및 실습 교육 △사회적 경제의 이해 △모의 수업 △SNS 마케팅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한 가지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3D프린팅, 3D펜 공예, 소이캔들 공예, 비즈공예 등 다양하게 체험하며 창의적인 색채구성과 EQ개발, 평면과 입체의 감각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 과정으로 양말목공예, 레진공예, 캔들공예 등 수료생들이 작품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전정희 센터장은 "섬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도내 여성들이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성공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wrc.re.kr)이나 취업지원팀(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발, 평면과 입체의 감각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 과정으로 양말목공예, 레진공예, 캔들공예 등 수료생들이 작품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전정희 센터장은 "섬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도내 여성들이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성공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wrc.re.kr)이나 취업지원팀(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반려동물·온 가족 즐기는 광장콘서트 개최

언제나 신선한 아이디어로 음악 애호가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17일 오후 5시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반려동물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애견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생명 존중에 대한 높아진 인식으로, 인간과 반

려동물이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 풍속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공연이다. 선곡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곡들로 선정했으며, 명명 클래식 의 이웃집 토트토 OST를 시작으로 플란디스의 개 OST, 야옹 클래식, 집사 클래식, 가족 클래식 등 테마 주제로 선별해 우리 귀에 익숙한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인다. /군산=김관근 기자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강석홍 작가 첫 개인전 '먼길 돌아오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강석홍 작가의 첫 개인전 '먼길 돌아오며'를 선보인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강 작가는 작업 대상의 재현이 아닌 상상의 표현으로써 단순하면서도 자신의 느낌을 재해석해 표현하고, 그 느낌을 담아 상상력을 자유롭게 풀어냄으로써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생각들, 그리고 소중

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람객과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 특히 작품 하나하나에 나름 씩씩하고 용기있게 붓칠을 해 색을 입혔으며, 고운 색감의 흔적을 내려고 노력했다. 힘겹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작가만의 고유한 색상과 세상에 쏟아지는 빛들을 차곡차곡 모아 따뜻한 온기를 듬뿍 담은 작품이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전북예술인복지센터(063-230-744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21회 전국시조경창대회' 고창서 열려

삶의 애환과 희망,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자연의 아름다움 등 우리 민족의 얼과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장르인 시조경창대회가 대한시조협회 고창지회(지회장 정재선)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고창군이 후원해 최근 고창에서 열렸다.

선조들의 삶을 창 문화로 계승한 시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시조 동호인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평시조부, 사설시조부, 대상부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그 결과 평시조부 안중석(고창군), 사설시조부 위연환

(김제시)씨가 각각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대상부에 참가한 조남순(충북 옥천군)씨가 제21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장원의 영예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시조협회 고창군 지회 정재선 회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전통 문화유산이 사라져가는 요즘 앞으로도 시조경창대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옛것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시조창을 지키고 알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정재선 지회장님과 박종대 회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조 동호인분들께 감사드리며, 고창군도 선조들이 물려준 고귀한 문화유산을 오늘과 같은 대회를 통해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